

특별기획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추진

김제보건소 자살예방의 날 행사

김제시 보건소(소장 박래만)는 세계 자살예방의 날(9. 10) 행사를 지난 6일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문제에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보건소 1층 회의실에서 관계 공무원 8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10년이상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으며 자살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특히 김제시도 매년 30여명이 넘는 사람이 소중한 생명을 버리고 있는 실정이다. 김제시 정신건강진단센터에서는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기념하여 지난 6일부터 4일간 "자살 예방을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라는 주제로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한다.

김제시 보건소는 정신건강 관련 보건·사회·경찰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살위험 개입 절차와 관계자의 역할과 현장 대응 과정을 소개하고 자살 시도자의 임상적 특징을 교육하였다.

또한 홍보 캠페인으로 7일에는 '우리 모두 생명 소중하게'라는 주제로 김제 문화예술 회관과 전통시장에서, 8일에는 지평선 아카데미에 참석하는 시민 대상으로 생명나무 만들기 및 캘리그래피로 내가 힘들 때 힘이되는 한마디를 써주는 장을 마련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경찰 '농기계 등 반사지 부착' 교통사고예방 적극 나서

부안경찰서(서장 강현신)는 추석명절과 본격적인 추수철을 앞두고 농기계와 이륜차 운행중가로 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각 마을을 찾아 야간 반사지를 부착하는 교통사고 예방에 발벗고 나섰다.

부안경찰서(서장 강현신)는 추석명절과 본격적인 추수철을 앞두고 농기계와 이륜차 운행중가로 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각 마을을 찾아 야간 반사지를 부착하는 교통사고 예방에 발벗고 나섰다.

강현신 서장은 "경운기 등 농기계 뒷면에 반사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거나 퇴색되어 표시가 나지 않으면 야간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아 가급적 야간운행을 자제하고 부득이 야간 운행 시엔 꼭 반사지 등 안전장치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 고속도로 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

정읍시는 지난 8월부터 1개월 동안 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를 실시했다.

시는 이 기간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광고탑을 적법하게 허가처리하고 상업광고 부착 광고물은 광고주에게 철거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 2008년부터 적용된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도로 등에는 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된다. 이와 관련 시는 "하지만 광고탑 대부분이 이 법률 시행 전인 2008년 이전에 설치돼 있어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 공공목적 광고물의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적법처리하고, 라디오 방송 주파수 하단에 부착돼 있는 기업체 또는 대학 등의 불법 광고물은 철거했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새재 진입로 정비 완료

정읍시가 새재 진입로를 정비해 인근 마을 주민들과 방문객들의 편의증진이 기대된다.

시는 최근 시비 5천500만원을 투입해 내장산과 입암산 등산로 중 한 곳인 신정동 새재 진입로를 확·포장했다.

지난 4월 신정동 백학마을 새재가든 부근 ~ 매표소까지 약 150m 구간의 정비 공사를 착공, 상수도 등 지하 매설물을 설치하고 기존 도로(B=3m)를 확·포장(B=8m)하는 등 8월까지 모든 공정을 마쳤다.

김생기 시장은 "이번 새재 진입로 확·포장으로 내장산과 입암산 새재 구간 방문객의 교통 편의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 주거환경 열악한 7가구 선정 1가구에 최대 380만원 지원

김제시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대상자 7가구를 선정, 1가구에 최대 38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주민복지과)에서 국토교통부(건축과)로 이관됨에 따라 사업의 근거 법령인 장애인고령자등 주거약자 지원법(2016.1.29 개정)을 일부 보완하여 시행한다.

지원내용은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주출입구 접근로(마당) 포장, 경사로 설치, 주택 개조 시 파손된 배배 및 장판보수 등으로 가구 당 38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장애인 불편시설 외에 일반적 인 노후시설 개선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우선순위는 장애등급이 높은 지체 및 뇌병변·시각장애인 가구, 장애인 다수 가구, 지체 및 뇌병변, 시각장애와 다른 장애 유형이 중복된 가구, 고령장애인 가구, 주택개조가 시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장애인 가구 순이다.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 소유자의 동의(장애인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은 장애인에게 4년간 의무 임대 필요)가 필요하다.

주택 개조사업이 필요하나 서류작성이나 시공자 선정 등 사업추진이 어려운 장애인 가구의 불편을 해소

하기 위해 담당공무원이 가구별 현황을 파악, 직접 방문해 대상자를 선정하며, 시는 각 읍·면사무소에서 추천받은 가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해 9월중 지원대상자를 확정한다고 했다.

한일택 건축과장은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설치방법을 준수해 편의시설과 안전장치 등을 설치할 계획"이라며 "주거시설 개보수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제시는 지난 2008년부터 농어촌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전체 94가구에 3억 5,720여만원을 지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올해 프로그램은 서울 청소년들이 가이드가 되어 정읍 청소년들과 함께 여행을 기획하고 서울의 명소를 안내하면서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 체험하고 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정읍 청소년, 서울서 2박 3일간 '문화감성여행 나들이'

중학교 1~2학년생 80명 참가

정읍시 중등 1~2학년 청소년 80명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2박3일 동안 '청소년문화감성여행 서울나들이'라는 테마로 역사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서울시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이번 정읍 청소년들의 역사문화체험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다.

올해 프로그램은 서울 청소년들이 가이드가 되어 정읍 청소년들과 함께

여행을 기획하고 서울의 명소를 안내하면서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 체험하고 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첫 날에는 서울시 시민청과 광화문광장, 청계천 일대를 돌아보며 서울의 느낌을 만끽하고, 모뎀별로 서울 자유 여행을 기획하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에는 과거와 오늘이 어우러진 서울의 북촌한옥마을과 경복궁, 광화문 일대를 돌아보고 첫째 날 기획

한 서울 자유여행을 즐겼다. 이어 마지막 날에는 참여형 연극에서 직접 주인공이 되어 연기를 펼쳐 보고, 3일 동안 활동했던 사진과 영상 시청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한편 시는 다음달 11~13일 2박3일간 서울의 청소년 80명을 초청해 전통문화체험, 구절초 테마공원과 내장산역사문화관, 태산산비문회관 및 동학유적지 탐방 등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건강한 가로수 생육환경 조성나서

나무 2만6천710주대상 10월 31일까지 주기적으로 대대적인 방제

정읍시가 여름 내내 이어져 폭염으로 수목에 각종 병해충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건강한 가로수 생육환경 조성을 위한 수목 병해충 방제작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도심 가로수에 흰불나방이 발생하고, 철쭉과 회양목 등 관목에는 명나방이 발생하는 등 수목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8월부터 주요 도로변 가로수와 공원, 화단 등 시민들이 많이 찾는 녹지공간에 대한 대대적인 방제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병해충 방제는 총정로 등 59개 노선의 은행나무 등 가로수 1천240주와 어린이공원과 녹지시설에 식재되어 있는 단풍나무 등 2만6천710주를 대상으로 10월 31일까지 주기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시는 특히 방제작업과 함께 녹지대, 중앙분리대, 가로화단 등을 대상으로 제초작업도 진행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사업 일환으로 주요 도로변과 유류지, 공원 등에 펜지 등 9종 36만본의 계절꽃을 곳곳에 심었

다. 시는 이와 함께 도시숲과 공원, 보호수 등 도심 생활권 나무에 발생하는 병해충은 민간 나무병원 수목진료 전문가의 수목 진단과 처방을 통해 적절한 농약을 선정하고 적기 방제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김생기시장은 "폭염에 따른 수목병해충으로 인한 시민 피해와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인 방제작업을 펼치고 있다"며 "특히 정읍은 전국제일 명품 소나무의 본고장인 만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소나무재선충은 기필코 막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 '감곡면민의 날 감골축제' 성료

제 11회 감곡면민의 날 감골축제가 최근 지역주민과, 출향인, 내외빈 등 1천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면 체육회(회장 진명선) 주최로 열린 행사에는 김생기 시장과 유성업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시의원 및 지역 내 기관·단체장이 참석해 면민의 날 축제 개최를 축하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올해의 면민의 장 수상자에 대한 상패 전달과 함께

시장 감사패 수상자인 조관용(육신마을)씨와 김현남(석정마을)씨, 체육회장 공로상 수상자인 체육회 박상남씨와 감곡면 박오실씨 등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이어 이어진 2부 행사에는 11개리 40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율동놀이와 투호경기, 고무신 멀리 날리기 등의 체육경기가 펼쳐졌다. 특히 감곡난타동호회원들의 신명나는 난타 퍼포먼스와 노래자랑, 그리

고 이지 등의 푸짐한 경품추첨도 이어져 즐거움을 더했다.

이날 김생기 시장은 "극심한 폭염과 가뭄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를 보낸 면민들이 열 한 번쯤을 맞이하는 감골축제를 통해 그간의 시름과 근심을 날려버리고, 이웃과 한데 어울려 흥겨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지역발전을 위해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을 모아 보다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 나가자"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번 워크숍에서는 협의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특화사업, 자원 발굴 등의 방법을 의논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김제시 교월동, 마을공동체 활성화 전략 등 모색

김제시 교월동(동장 김태한)은 지난 5일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김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보문종합사회복지관 지원으로 교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김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강민정 팀장과 오마이티처 김석 대표이사가 강사로 참석하여 교육소개 및 마음열기, 주민공동체 이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전략 등의 주제로 협의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특화사업, 자원 발굴 등의 방법을 모색했다. 지역특화사업은 퍼실리테이션(주민참여 촉진능력강화) 방식으로 진행되어 참석자 위원들의 뜨거운 호응과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었으며, 경로당을 활용한 '뜨개질 사업'과 '서로서로 염색해주기 사업'이 채택

되어 9월부터 구체적인 추진 방법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박경준 위원장은 "이번 회의 역시 두 시간 넘게 진행됐지만 위원이 모두 참여하여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선정할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고, 구성원들 각자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 협의체 역할을 수행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태한 교월동장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내고,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연계 지원하는 데 어느 지역보다 두각을 나타내고 지역사회복지를 견인할 수 있는 협의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동장으로서, 공동위원장으로서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작년 총 살림규모 7394억원

결산내용 홈페이지 공시

김제시는 2016년 김제시 재정공시(결산)를 통해 지난해 살림살이를 홈페이지(www.gimje.go.kr)에 최근 공개했다. 이번엔 공개된 2015년도 결산결과에 대한 재정공시는 김제시의 살림규모, 재정여건, 부채·채무·채권현황 등의 재정운용 결과를 담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김제시 살림규모는 7,394억원으로 전년 대비 535억원이 증가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의한 자체수입이 653억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이 5,179억원으로 집계되었다.

김제시의 이같은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보다 1,003억원 많은 수준으로 자체수입은 유사단체 평균액 901억보다 248억원이 적으나 의존재원은 유사단체 평균액 3,868억 원보다 1,311억원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치단체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14.16%로 유사자치단체(20.85%)보다 6.69% 낮은 편이나 전년도 대비 0.26% 증가한 수치로 이는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시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농가주부모임회원은 중추철을 맞이하여 밀반찬 양념을 듬뿍 넣어 더욱 맛있게 담아 독거 어르신에게 전달했다.

추석맞이 사랑의 밀반찬 나눔

부안농협·농가주부모임, 독거어르신에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아 부안농협(조합장 김원철)과 농가주부모임(회장 김미훈)이 관내 외롭게 생활하는 독거노인들에게 사랑의 밀반찬을 전달 훈훈한 마음을 전했다.

지난 5일 부안농협 벼 공동육묘장 앞에서 부안농협 협동조직인 농가주부모임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배추 300포기를 정성으로 담아 관내의 불우한 이웃 150여 농가에 따뜻한 정을 함께 전달했

다. 농가주부모임회원은 불우한 이웃에게 매달 제철음식인 밀반찬 2가지 이상을 담아 전달을 하고 있으며, 중추절을 맞이하여 양념을 듬뿍 넣어 더욱 맛있게 담아 전달하였다.

김원철 조합장은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기쁨을 주었으면 한다"면서 "항상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